

로버트 치죐 박사, 이사야의 종의 노래, 세션 1: 주님의 종: 정의의 옹호자이자 언약의 중재자(A) (이사야 42:1-9)

로버트 치죐 박사님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1부, 주님의 종, 정의의 투사, 언약의 중재자, A부, 이사야
42 장 1-9절입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대한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노래들에
대한 네 가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야서는 종종 매우 메시아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소위 '종의 노래'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메시아적 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들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단순히 문맥에서 분리하여 깊이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노래가 그 문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노래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두 노래에서 우리는 종이 정의의 옹호자이자
언약의 중재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700년경과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소위 ' 제2 이사야'가 쓴 것이라는 사실도요.
실제로 버나드 뒀이라는 학자는 " 아니요 , 이사야는 세 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사야가 있고, 두 번째 이사야인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까지를
썼으며, 세 번째 이사야, 즉 제3이사야가 56장부터 66장까지 썼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이사야가 살았던 포로기 이전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많은 부분이 고차원적 비평 합의에 따라 후대 저자의 저작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그 모든 내용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55절까지는 유배 기간의 것이고, 56절부터 66절까지는 세 번째 이사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배 이후의 것이며,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여전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책 전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영감받은 부분들을 고려하지만, 일부 사람들처럼 대규모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사야는 유배를 예언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을 보면, 36장과 37장에는 아시리아 위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성벽 밖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39장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리아인에게서 구원하셨지만,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인과 칼데아인들을 잔소리 하고 먹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전형적인 왕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도시를 파괴 하고 네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갈 날이 올 줄 모르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서 유배가 예언되었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일이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수사학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미래에 자신을 투영하고, 마치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유배 생활을 하게 될 미래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40장부터 55장까지 8세기를 배경으로 한 암시와 증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에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대부분 유배가 이미 일어났고, 약속된 것은 유배에서의 구원인 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유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그것을 56장부터 66장까지 확장하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정신으로 글을 쓴, 영감을 받은 익명의 선지자가 이 자료를 추가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찬반 양론을 모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미래 세대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손녀가 커서 결혼하면 자신이 곁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없을 것이기에, 결혼식 날 열어 볼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온갖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녀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이지만, 바로 앞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소위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40장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레자 요한의 사역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이사야의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구원의 선포와 신탁,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서, 도시가 고난을 겪었기에 위로는 필요한 때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도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유배되었고, 시온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그곳을 떠났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 좋은 길을 닦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덕적인 준비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레 요한의 사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 즉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분이 주시는 왕국을 위해 도덕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 곧 돌아오실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에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그 구절 중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족장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40절에서 55절까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왜 유배 생활을 하는지, 즉 죄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하지 않고, 그들의 수호신인 마르두크도 나보다 더 강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는

죄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싶고,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바빌론에 있어. 나는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40장의 메시지다. 그리고 41장에서 주님은 백성을 바빌론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도구 중 하나에 대해 말씀하신다.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기원전 586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세 차례의 바빌로니아 침략이 있었지만, 기원전 586년에 백성들이 유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540년에 이 구절에 이름이 언급된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왔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후기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코레스라고 불립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그인데, 44장과 4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시어 바빌론을 정복하실 것이었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레스는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으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사자입니다 .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회복에는 도덕적, 신학적 차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41절에서도 누가 동방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십니까? 누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봉사하도록 위임하십니까? 그는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시고 왕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칼로 티끌처럼, 활로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만드십니다. 그는 그들을 추격하여 무사히 지나가십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진군합니다. 그는 전사 왕, 고레스 왕이며,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바빌론을 무찌르고 백성을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이 내용이 소개되고, 바로 뒤인 8절에서 20절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 곧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멀고 귀먹은 자로, 포로로 잡혀 있으며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장에서 종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종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주님의 종을 이스라엘로 일관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야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두 명의 다른 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1장 21절에서 주님은 다시 이 구원의 도구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북방에서 한 도구를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동쪽이었는데, 여기는 북쪽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해하신다면, 동쪽과 북쪽 모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쪽에서 한 명을 불러들였고, 동쪽 지평선에서 온 한 명은 제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마치 진흙을 밟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통치자들을 밟고, 주님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선포했다고 설명하십시오. 이 구절의 주제 중 하나는 주님께서 "나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자로 삼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요,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주장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사야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자세히 읽고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취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미리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전에, 숲의 큰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종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니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노라." 그리고 나서 그는 종의 사역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표현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41장에서 보았던, 종이 택함을 받은 구절, 즉 야곱 이스라엘과 일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제 생각에 칠십인역(LXX), 즉 칠십인역은 야곱 이스라엘을 여기에 실제로 포함시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 왜 그럴지 이해합니다. 유사점이 있어서 그가 포로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두 번째 종의 노래와 연관 지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귀납적으로 접근해서 이 구절에 이르러 주님의 구원의 대행자가 될 종에 대해 읽는다면, 그가 고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44장과 45장에 등장할 예정이지만,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동쪽에서 온 왕, 북쪽에서 온 왕, 그리고 정복 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일지도 모르지만, 이 노래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이 종은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이 노래에서 그렇게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사람들을 짓밟지 않을 것이기에 정복하는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4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로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종을 밝히시고, 두 노래의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에서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종의 이스라엘이요.

고레스가 아니에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라는 뜻인가요 , 야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의 노래 바로 뒤에, 주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종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유배 중이며,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은 두 번째 노래에 있습니다. 49절 두 번째 노래에서 5절과 6절에서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들에서 쫓겨난 종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 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야곱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야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구절들의 문법이나 구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존 오스월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기능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셨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열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결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와서 포로로 잡혀간 죄 많은 야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곡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읽어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역과 그가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과 함께 인용되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민족들을 위해 정의로운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임무는 정의의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은 분명 불의와 압제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임무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거나 소리치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로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는 끄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에서 꺼진 심지에 대한 비유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꺼진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그는 거의 종말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나타나 이 사람들을 짓밟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족에게 유익할 정의로운 법령을 신실하게 제정할 것이며, 땅에 정의를 세우기 전에는 쇠하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섬들은 그의 법령을 고대하며 기다릴 것이다.

좋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에 익숙하다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52장 끝부분에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3장에서 그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세 번째 노래에 이르러서는 그가 고난받고 있고, 네 번째 노래, 특히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그의 고난에 대해 자세히 읽습니다. 처음 두 노래는 어떨까요? 고통의 차원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42장 2절에서 그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동사인 tza'ak 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사용되며, 그들은 희생자이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은 그런 식으로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제안했고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종이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암시이며, 그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구타당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학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종의 노래를 두 번째로 읽고 그들이 향하는 곳을 이해하고 이미 그의 고통에 대해 읽었을 때, 두 번째로 이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때 처음에는 놓칠 수도 있지만, 그 단어의 사용법을 살펴보면, 반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는 땅에 정의를 세우기 전에는 어두워지거나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가 어두워져야 할까요? 왜 그가 꺾여야 할까요? 왜 그런 위협이 있을까요? 만약 그를 고통받는 곳으로 이끄는 반대가 있다면, 이것 역시 그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주제를 소개하고, 그 주제들은 문헌이 진행될수록 더욱 발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반대의 암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정의의 투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왕에 관한 시편들이 있는데, 원래 문맥상 종종 다윗을 지칭하지만, 이 시편들은 종종 메시아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에는 왕의 직분에 대한 이상이 제시되어 있고, 역사적인 왕들이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윗의 궁극적인 아들, 메시아, 곧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이고, 기름부음받은 자였습니다. 궁극적인 기름부음받은 자, 곧 대문자 A로 시작하는 분은 이 이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고 다윗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될 때, 그의 왕국에서 그 이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 왕의 시편 몇 편으로 데려가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시편들과 이 구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시편이 장차 올 종을 왕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은 고대 근동에서 정의를 담당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왕의 시편 중 하나인 시편 45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입력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환했는데, 시편 45편 4절에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왕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승리하소서.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대한 전사로 묘사하며, 제 생각에는 왕을 마치 신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왕을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신인(神人)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이고,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의 영을 주시고, 정의를 세우는 그의 사명을 수행할 힘을 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정의의 홀입니다.

왕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 때문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을 동류들보다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이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이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실현하실 왕의 이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의가 왕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썼거나, 솔로몬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 하나님, 왕에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솔로몬 자신도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왕의 아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능력을 주시면, 그는 당신의 백성을 공평하게, 압제받는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언덕들은 정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압제받는 자들을 백성에게서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자녀를 구원하고 압제자를 쳐부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 문헌이나 고대 근동의 우가리트 문헌에서 왕 들은 때때로 자신의 통치, 즉 통치를 정의라고 지칭합니다. 마치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인 것 같습니다 .

두 단어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왕의 통치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는 정의로 특징지어져야 하므로, 왕은 자신의 통치를 "나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신들에게 "내가 정의를 세웠다"라고 보고할 것입니다. 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 샤마쉬가 정의를 담당합니다.

그는 도움을 부르짖는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보호해 줄 이 없는 압제받는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해악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아와 관련된 삶에서 꽤 부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를 보장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실제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의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윗은 정의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이복형제 암논에게 강간당했는데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암논에게 화가 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 때문에 이복형제를 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 밖에서서 “내가 왕 이라면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요점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읽는 것처럼 정의가 확립되는 규모에 대해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 그저 예언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졌고, 정의를 장려하고 지지했으며, 왕들에게 정의를 확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장려했습니다. 왕의 책임은 그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왕입니다.

하인은 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하인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제가 문헌을 보면 때때로 한 역할과 다른 역할이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종은 선지자야. 아니, 그는 왕이야. 그 종은 새로운 모세야.

그는 선지자입니다. 분명 선지자이고, 49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들어가면 왜 그는 왕이자 선지자, 어쩌면 작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본문은 이사야서 안에 있는 11장인데, 거기에는 미래의 이상적인 다윗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사야서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순 이 자랄 거야. 제시는 데이비드의 아버지지. 새로운 데이비드가 태어날 거야.

그의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비범한 지혜를 주시는 영.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주시는 영. 주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하게 하는 영.

참고로, 저는 넷 바이블(Net Bible)을 읽고 있는데, 넷 바이블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읽고 있는 번역이 제 번역이라 제 번역에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꽤 오래전에 번역한 내용이라 지금 와서는 바꾸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는 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계속해 봅시다.

그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소문 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땅의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고 악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정의를 확립할 왕이 있다. 정의는 그의 허리에 두르는 띠와 같을 것이다.

성실함은 그의 허리에 두르는 띠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6절부터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포식자들이 평소에 죽이고 먹는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늑대, 표범과 어린 염소, 소와 어린 사자,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소와 곰은 함께 풀을 뜯을 것입니다.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무엇을 먹을지 궁금하다면, 급진적인 변화다 .

아기가 독사와 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때 독이 있고 적대적이었던 애완용 뱀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내 왕의 산 전체를 해치거나 파괴 하지 못할 것 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듯이 주님의 주권에 대한 보편적인 복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물과 관련된 일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의 변화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그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자 그대로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정의와 공평,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특징인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관점을 취하는 이유는 욥기 38장과 39장에서 주님이 욥에게 동물의 세계에서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주님과 원수 사이의 더 큰 영적 갈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욥기 앞부분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때, 다른 본문들,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들과 연관시킵니다. 제가 "좋아요, 누가 정의를 확립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먼저 "왕이시겠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왕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이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가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관련성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함축적으로 암시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대 세계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고학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다윗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왜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대인들에게 그런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점들을 연결해 줄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이사야는 또한 그 종을 정의의 수호자이자 왕으로서의 역할보다 더 넓은 역할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모세가 될 것이며, 예언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묘사가 다소 편향될 수 있고, 초상화의 다른 측면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왕이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 11장 과 42장이 성취됩니다. 그분은 앞으로 오실 이상적인 다윗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의 노래를 계속 읽어 봅시다. 5절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신 분.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위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신들이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배된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니, 아니, 나는 너희가 유일신교도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하엘 , 즉 하나님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이 그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빚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셨다고 말할 때, 그분은 그렇게 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종에게 "나, 주님이 너를 공식적으로 임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의로움으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의와 정의를 위해 너를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의 중보자로 삼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리라. 문자 그대로, 그것은 단지 언약일 뿐이다.

내가 너로 백성을 위한 언약을 세우리라. 사람이 어떻게 언약이 될 수 있겠는가? 언약은 조약이나 합의다. 우리는 환유를 사용하는데, 환유는 종종 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이 종은 언약을 중재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언약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는 단지 언약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그의 중보자 사역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 골든 게이는 최근 논평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리라. 이 종은 정의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중재하고 민족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여기서 빛은 구원을 의미한다.

49장에 이르면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과 4절을 보면, 네, 빛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읽어보시면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바로 앞 문맥만 살펴보면, 백성은 옴 (om), 즉 백성의 언약을 뜻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백성과의 언약,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 백성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5절에서 사용되었고,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앞 구절에서는 열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열방 가운데 정의를 세울 것이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6절에서 이 말씀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열방의 모든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행선에는, 열방을 향한 빛이 있습니다. 꼭 동의어일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라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졌던 또 다른 관점은, 이 노래를 49장 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49장에는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맥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열방 의 빛이 될 것입니다 .

문맥이 조금 다른데, 분명히 이스라엘 입니다 .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미래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민족들 끼리의 언약이 아닙니다 . 양측 모두 타당한 주장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실 실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9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족들에게 비칠 빛을 언급하면서, 야곱 이스라엘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 그런데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 곧 모세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을 새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조의 즉각적인 맥락이 더 전국적인 언약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49조를 42조에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지하 감옥의 죄수들을,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살인자들을 풀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

고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투옥되지 않았을 겁니다. 처형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억압받는 사람들, 채무자 같은 사람들, 부당하게 투옥되었기 때문에 석방되어야 할 억압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으면 마치 눈이 먼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는 구원의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 나는 주님이요, 이것이 내 이름이다 ."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내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전에 예언했던 예언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도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노라 .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아마도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그가 이전의 예언적 신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미리 알리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고, 실제로 새로운 출애굽이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의 일부가 될 것이며, 그분은 새로운 사건들을 알리시고, 그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연설에서 그는 때때로 이교 신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일을 훨씬 앞서 알리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당신들에게 그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시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종을 통해 행하실 일이며, 이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 그리고 다음 구절들은 제가 포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구절들은 노래에 가끔 포함되곤 합니다.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 끝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섬들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 광야와 그 성읍들과 가다르 유목민들이 사는 성읍들이 외쳐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뻐 외쳐라. 산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쳐라 .

그들이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해안 지방에서 그의 업적을 찬양할지어다. 보라, 강조점은 민족들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해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인데, 여기서는 땅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49장에서 그 내용이 더욱 좁혀질 것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빛이 될 것 입니다 .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공의롭게 대하고 구원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 에 빛을 비추는 이러한 개념이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 속의 왕족 이미지죠.

예를 들어, 티글랏-빌레세르 3세는 온 인류의 빛, 모든 사람의 빛으로 불렸습니다. 에사르하돈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수호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수호자였고, 빈민들을 도우려 노력했기에, 그런 면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저 장황하고 왕족다운 과장일 수도 있지만, 문화 속에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종은 어떻게 열방에 구원을 가져올까요? 그는 정의를 확립할 것이고, 이는 적어도 열방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서에 이미 나타난 내용들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선지자는 열방을 우상 숭배자로 묘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4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그 종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보고 나면, 그들은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예배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여러모로 우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된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으며, 동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처럼 모든 생명을 다시 멸망시키지 않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이 부ரி또 양고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인간의 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과 26 장입니다. 아시 켜어요? 첫 번째 노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사야에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야 24장과 26장에 따르면, 열국은 멸망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4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방이 그분께 돌아오라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패배하여 그분 앞에 엎드릴 날 전에 구원을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분의 평화와 정의의 왕국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이사야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방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곳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에게 그들의 불화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그들의 언약의 주님, 곧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사야 19장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유다의 경험 속에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모두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중재하고, 열방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인들과 화해하실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것의 메시아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잠시 좋은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로버트 치즈 박사님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1부, 주님의 종, 정의의 투사, 언약의 중재자, A부, 이사야 42 장 1-9절입니다.